

전남광주 지방채 한도 초과 ‘제동’…시의회 심사 보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88억원이다. 첫 추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연간 발행액이 한도보다 27억원 많은 9천1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 초과 발행 동의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추경에 반영된 추가 지방채는 1천18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62억원이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차환에 사용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등에도 지방채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옛 광주·전남 지방채 발행 여력 통합 사용, 기존 채무 차환,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옛 광주시가 지방채 기본 한도 1천455억원을 모두 사용한 반면, 옛 전남도는 465억원의 발행 여력을 남겨뒀다”며 “지방채 일부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이는 것은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편성 시기를 놓고도

추경 재원 1천188억…채무 차환 462억

옛 전남도 한도잔액 465억도 끌어와

의회 기재위, 적정성·상환계획 등 질의

농수산위 “추경안 제출 지연” 심사 보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추경안 이 의회를 통과한 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올해 3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도시철

도 2호선 1단계 공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

속 공정이 가능하다”며 “신속한 완공을 위해 올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은 옛 광주

시의 재정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 하면서도 통합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을 별개의 재정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볼 수 없

다. 통합 이후 재정과 채무를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집행부에 채무 관리 계획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채 현황, 지방비 미래지 사업 현황, 지방채 상환 계획, 차환에 따른 금리 변동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기재위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번 정례회 회기 내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도 이날 집행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관 추경안 심사를 전면 보류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집행부가 회기 개회를 하루 앞두고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고 세부 예산서도 개회 당일 전달했다”며 “집행부가 늦게 제출한 책임을 의회의 졸속 심사로 매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는 추경안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뒤 회기 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9일 소노캠 여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양경제자청, 미래 산업 1조655억 투자 협약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포럼서

에너지 기업 등 4개사 협약 체결

계획 이행시 수백명 고용창출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에너지·해상풍력·방산 등 미래 산업 분야 4개사와 1조655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광양만권 외자유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여수 소노캠호텔에서 열린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포럼 및 투자 협약식’에서 진행됐다.

투자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 서영학 여수시장, 손훈모 순천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쉬린 CGN울촌전력(주) 회장, 김덕한 (주)EEW

KHPC 대표, 장영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대표, 이선후 (주)위드피에스 대표가 참여했다.

광양경제자청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광양만권에 총 23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에너지와 해상풍력, 산업플랜트,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포럼 및 투자 협약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산업·물류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알리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한국의외국기업협회, 코트라 외투·국내북구·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등과 글로벌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인 8일 주요 외빈들은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관람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광주 동부권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광양항과 울촌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주요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를 통해 산업 용지와 항만·산업 인프라 등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확인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시와 여수·순천·광양시, 광양경제자청이 하나의 팀이 돼 인허가와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이번 포럼이 광양만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 향후 외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자청은 올해 투자유치 2조4천억원, 37개사 유치, 일자리 1천27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안 재검토·반려하라”

목포등 서남권 시장·군수 8명 입장문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서 목포대가 탈락한 가운데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추천안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촉구했다.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는 강성희 목포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후보대학 추천안에 대해 “위법·불공정한 심사 내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

한 반면, 순천대는 사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지만 부지 평가에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사 이후 순천대 부지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시가 국유지 매입 등 보완 방안을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전국 섬의 41%가 집중되고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 미도착 사망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다는 서남권 의료 취약성 지표가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영역을 균형 배치한다는 방침과 달리 심사위원 8명이 의대 교수 7명과 재정건설전문 1명으로 구성된 점도 고집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추천안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특별시에는 선정·심사자료 공개와 선정 결과 해지를 요구했다.

/최명진 기자

안도걸 위원장 “서남권 의료대책 뒷받침”

국립의대 탈락 반발 남약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안도걸 위원장이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오후 6시 국립의대 재심사를 촉구하며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남약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최정훈 의원 등을 만나 지역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립의대 유치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꺾인 것에 뼈저린 책임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쏟아낸 울분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인 만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남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상실감을 보듬고 무너진 기대를 되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약·서남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검토를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긴밀히 공조해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했다. 이날 중 의료체계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서남권 의료 대도약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28기 신입생 및 교육생 모집

- 대 상 : 스님, 일반불자, 교인, 법사 - 선착순 모집
- 교육내용 : 간단한 상주권공, 각종 불공의식, 신중39위, 바라춤, 나비춤, 사다리, 도량계, 다게, 복춤, 안채비, 겹채비, 대령소, 회심곡(화청) 등등
- 교육기간 : 2026년 10월 7일부터 4개월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 목
- 교육시간 :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까지

혜공스님 교육

2026년 11월 17일 오후 3시 ~ 21일 오전 12시(4박5일)

전문의 스님한테 49재, 천도재, 애완용천도재, 방생기도 하실 분

- 49재 : 일곱 번 올리고 350만원 / 세 번 올리고 250만원
- 가족 천도재 : 200만원
- 애완용 천도재(2번) : 150만원
- 조상님 위패 100년 모심 (명절 포함, 제사 가능) 가족당 20만원
- 방생 : 팔공산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시교육청 앞 출발

- 이번 교육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교육은 4개월에 걸쳐 강의합니다.
- 약 2시간에 걸쳐 49재, 천도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 불교 상담 가능
- 모든 의식 전문의 청하실 분 세분가고 110만원 (각 지방(방방곡곡)도 가능함)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육	15 산중불공	29 작법무(사방산소리도량계)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재의식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승다계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재의식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리나)	45 화엄시식
4 회심곡(화청)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청)2	19 풍사관육	33 아침저녁중청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풍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창훈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육(간단한관육)	49 영가왕생계축, 지육계
8 점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재, 천도재, 실기의식1,2,3,4,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 49재의식1	51 20일간 상주권공 법배교육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조식예불	38 상주권공 49재의식2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1 안 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 49재의식3	
12 시 다 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0 상주권공 49재의식4	
13 산신불공	27 사시상단불공	41 제사불공	52 교재 2권(1, 2권) 100,000원
14 미타불공	28 작법무(복청계천수바라)	42 삼신이운	

혜공스님 영상 불공의식 51가지 교재 2권 10만원 / USB 판매 각각 6만원
▶ 계좌: 농협 356-0473-1969 (노연숙) ▶ 제품구입처 : 혜공스님 010-5765-8604
광주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50호 혜공 스님